

공동체 소식

-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며 추수감사미사로 함께 봉헌됩니다. 다해의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일년동안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헌금 봉헌해 주십시오. 교회력으로 새해(가해)를 준비하며 **대청소** 있습니다.
 - 추수감사 주간 평일 미사 없습니다.[26일(화), 27일(수)]

- 신앙생활봉헌서 제출 안내**
 - 신앙생활봉헌서 작성하신 후 미사 봉헌때나 본당신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구역/반에서도 공지해 주십시오.

- 평일미사 변경안내**
 - 목요일 오전10시 미사가 없었습니다.
 - 화요일, 수요일 저녁미사만 있습니다.
- 교무금 안내**
 - 매월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 모든 가정에서 추가로 한 달분이상 교무금을 감사헌금으로 봉헌해 주십시오.
 - 감사헌금 봉헌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무금 책정시 십일조의 정신을 살려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2차헌금/캠페인 안내**
 - **24일(일) Catholic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CCHD) 인간개발을 위한 가톨릭 캠페인**
 - **One Faith Campaign 가정별로 약정서 작성하시어 대교구로 이번 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미사 신청 안내(\$60)**
 - 매일미사 책 1년치 신청받습니다. 전례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 상식**
 - 주일에 타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성당(한인/미국)에서 주일미사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미사 참례를 못할 경우 고해성사를 하시고 영성체 하셔야 합니다.
 - 전례봉사자는 미사 참례전 고해성사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또한 중앙통로는 전례때에 주로 사용합니다. 제단에 드나들거나 제대 앞을 지나가는 이는 모두 제대에 깊은 절을 해야 합니다(주교예절서 72항 참조). 독서자는 독서대에 오르기 전에 미사 전례의 중심인 제대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전례 성가

	입당	예물	성체	파견
금 주	73	219	174	77
차 주	92	216	153	88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명은(안젤라)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차 주	김시연(엘리사벳)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네스)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차민서(임마누엘)	김정원(안젤라) 김정빈(바오로)
차 주		정예찬(미카엘) 고평원(프란치스코)

헌금 봉사자

금 주	감영진(라파엘), 차상욱(펠릭스)
차 주	홍순익(마르티노), 이우영(가브리엘)

애찬 봉사자

금 주	그리스도왕 대축일
차 주	3조: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24일 전신자 대청소 합니다).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뉘었을 뿐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마지막 주일로,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정의와 사랑으로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두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아드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목숨을 형제들을 위하여 내어 놓게 하시어, 하늘 나라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림 묵상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루카 23, 40-43

제 1 독서 : 사무엘기 하권 5,1-3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1,12-20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23,35L-43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 그리고 임금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의 왕직(王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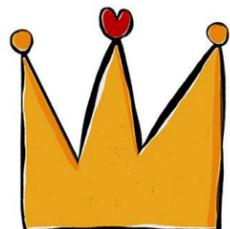


오늘의 첫째 독서인 2사무 5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됩니다. 그 계약의 대목에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지켜줄 것,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려줄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요청은 오늘날의 국가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독서에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구약에서는 임금에게 부여되는 셋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역할입니다. 임금의 신학적 역할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만을 섬기고, 다른 잡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 신학적 역할에 구약의 역사서는 매우 큰 비중을 할애하는데, 특히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다윗 이후의 임금들이 바로 그 신학적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역사서는 설명합니다.

스도의 다스림이 (지배의 권력이 아니라!) 섬김의 권능이라는 점입니다(마르 10,45 참조).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안에서 (지배가 아닌!) 섬김의 왕직(王職)을 수행합니다. 하느님과의 일치 아래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세상의 화해와 하느님 창조계의 평화를 위해 땀 흘리는 수고로운 섬김의 삶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왕직(王職)입니다.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교리신학원 원장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둘째 독서는 콜로 1장입니다. 특히 콜로 1,15-20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창조론적으로 노래하는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그 찬가를 이끄는 12-14절에서 바오로는 "빛의 나라"와 "어둠의 권세"를 대비시키는데, 그에게 있어서 그 빛의 나라는 곧 "아드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그리스도 찬가는 아드님의 권능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 권능의 마지막 목적지는 '평화'와 '화해'입니다.

오늘의 복음인 루카 23장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두 명의 죄수를 만납니다. 한 죄수는 예수님을 모독하지만, 다른 한 죄수는 "선생님의 나라(!)"를 언급하면서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을 청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성서 신학자들은 "하느님 나라"라는 개념을 장소적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하느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독서와 복음은 그 하느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예수님의 일치 아래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 동일성은 하느님과 그리

왕이라면 자신만의 업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당신의 업적은 무엇이오.

나는 다른 업적은 없소만.. 굳이 무얼 했나 묻는다면.. 나는 나의 백성과 늘 함께했소.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루카 23,43)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별

몇 해 전, 제 바닥이 어디인지 날날이 확인하게 되면서 인생 최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강화도의 빼곡한 밤하늘 별들 사이에서 지는 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도 저렇게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으로 품어야 할 가족에게 상처가 될 걸 알면서도 가시 돋친 말을 쏟아내고, 함께하는 공동체에 뾰족하게 굴고 말았습니다. 굵이 굵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골짜기에 갇혀 힘에 부치는 순간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가진 진짜 모습을 확인하게 되면서 무릎은 꿇이고 좌절하게 되는 듯 싶습니다. 그 순간에 제 삶의 방향에 대해 뒤돌아 볼 신앙의 깊이가 있었더라면, 하느님의 값진 초대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전히 저는 그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홀로 견딜 힘이 부족할 때에는 복음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벗들을 만나게 해 주십사 청합니다. 그렇게 저를 하느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점검해 나아가다 보면 간유리처럼 뿌옇더라도 그 방향만큼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한 제가 여러 시련을 겪는 동안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들을 통해 저와 함께 걸어주신 성령께서 제 안에 늘 뜨겁게 샘솟는 은총을 주셨음을 하느님께서는 깨닫게 해 주십니다.

누구든 고통스러운 무엇과 마주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별이라고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해 하셨던 성모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가 심어 놓은 하늘의 별들 중에 주님의

현존을 느끼며 심어놓은 별은 몇 개쯤 될까요? 이 별들이 그토록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좋은 것들만 모여야 가능한 것이 아니었구나 생각하니 허투루 보낸 고통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사랑과 고통은 공존의 영역에 함께 있어야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 됩니다. 저는 이제 하늘에 수많은 별을 올려다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헤아릴 수 없는 별들 중에 '내가 심어 놓은 고통은 몇 개쯤 될까, 내가 심어 놓은 기쁨은 몇 개쯤 될까, 내가 심어 놓은 감사는 몇 개쯤 될까...?'

이 모든 것들 안에 놀랍도록 빛나는 하느님의 섭리는 그 무리 안에 제가 심어놓은 희로애락들도 함께 빛나게 해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는 비어있는 별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자리에 새로 심길 누군가의 고통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치유되어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 사이에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길잡이 별'처럼, 그 자리에 심길 누군가의 '별'도 하느님께 다가서는 '길잡이 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혜선 요셉피나 | 성가 가수, 금속공예가

복음묵상

